

# 7이닝 1실점에도...양현종, 통산 다승 2위 또 '다음 기회에'

7이닝 8피안타 3탈삼진 1볼넷 1실점 호투 불구 승리 불발  
2200이닝 돌파...송진우·정민철·이강철 이어 역대 4번째

KIA 타이거즈 좌완 에이스 양현종(35)이 호투를 선보였지만 타선 침묵 속에 통산 162승 달성 기회를 또 다음으로 미뤘다. 양현종은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2023 신한은행 쏘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8피안타 3탈삼진 1볼넷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무려 111개의 공을 뿌리며 역투를 선보였으나 승리는 불발했다. 다만 양현종은 통산 이닝 수를 2205%이닝으로 늘려 통산 2200이닝을 돌파했다. 통산 2200이닝을 돌파한 것은 양현종이 송진우(3003이닝), 정민철(2394%이닝), 이강철(2204%이닝)에 이어 역대 4번째다. 통산 이닝 순위에서 양현종은 이강철을 제치고 단독 3위가 됐다.

양현종은 지난 9일 광주 SSG 랜더스전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개인 통산 161번째 승리를 수확해 통산 다승 순위에서 정민철과 함께 공동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다음 등판인 14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는 승리를 낚지 못해 통산 다승 단독 2위 등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양현종은 이날 재도전에 나섰으나 타선 침묵 속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KIA 타선은 키움 선발 최원태 공략에 애를 먹으며 7회까지 득점하지 못했다. 양현종은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면서도 실점하지 않았다. 1회초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한 양현종은 2회초 안타 2개를 내줘 2사 1, 2루에 놓였지만, 이지영을 상대하던 도중 포수 한승택이 2루 주자 박찬혁을 견제사로 잡아내 실점없이 이닝을 끝냈다. 양현종은 3회초에도 선두타자 이지영에 안타를 맞았고, 희생번트와 진루타를 내줘 2사 3루에 놓였다. 그러나 이형종을 포수 파울 플레이로 잡고 실점을 막았다. 4회초에도 선두타자 이원석에 안타를 허용했던 양현종은 이후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물리쳤다. 양현종은 5회초 1사 후 이지영에 안타를 맞았으나 김휘집을 삼진으로, 이징후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6회초에도 선두타자 이형종에 안타를 내주고 출발했던 양현종은 이원석을 3루 땅볼로 잡은 후 에디슨 러셀에 병살타를 유도해 위기가 이닝을 마무리했다. 7회초에도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결국 선취점을 내주고 말았다. 선두타자 박찬혁에 볼넷을 헌납한 후 김태진에 희생번트를 허용한 양현종은 임지열에 내야안타를 맞고 1사 1, 3루 위기에 몰렸다.



이어 이지영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선취점을 줬다. 양현종은 김휘집을 삼진으로, 이징후를 1루 땅볼로 돌려세워 더 이상 실점하지 않았다. 한편 기아는 키움에 0-1로 패배했다. 최이슬기자

## FA 대어 최준용, KCC 유니폼 입는다

계약기간 5년, 첫해 보수 6억원(연봉 4억2000만원·인센티브 1억8000만원)



비해 한국 농구를 이끌어 갈 미래로 손꼽혔던 최준용은 '악동' 이미지가 강했다. 특히 2020~2021시즌에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부상과 돌발 행동으로 인해 14경기 밖에 뛰지 못했고, 평균 8.1득점 7.2리바운드 2.7어시스트에 그쳤다. 하지만 2021~2022시즌 활활타태한 모습을 보였다. 전 경기(54경기)에 출전해 평균 16득점 5.8리바운드 3.5어시스트로 맹활약해 SK의 정규리그 우승에 앞장섰다. 해당 시즌 최우수선수(MVP)도 최준용의 차지였다. 최준용은 2022~2023시즌 왼쪽 발뒤꿈치 부상이 겹치면서 26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건강할 때는 MVP의 면모를 한껏 뽐냈다. 평균 12.7득점 5.9리바운드 3.8어시스트의 성적을 냈다. 부상 여파로 최준용은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에 나서지 못했다. SK는 6강, 4강 플레이오프를 모두 3연승으로 끝내고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지만, 7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KGC인삼공사에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최준용이 부상 없이 챔피언결정전을 뛰었다면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최준용의 영입으로 허용, 송교창, 이승현 등과 더불어 초호화 라인업을 구축한 KCC는 다음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KCC는 "전 포지션에 멀티 플레이가 가능한 최준용 영입으로 높이 보강과 특점력, 공수 밸런스의 안정감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최준용이 전주 KCC 유니폼을 입는다. KCC는 FA 최준용과 계약기간 5년, 첫해 보수 총액 6억원(연봉 4억2000만원·인센티브 1억8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2016~2017시즌 프로에 데뷔한 이래 서울 SK에서만 뛰었던 최준용은 FA 자격을 얻어 이적을 택했다. 안양 KGC인삼공사에서 SK로 이적한 오세근에 이어 또 하나의 '원 클럽맨' 이동이다. 200cm의 장신 포워드로, 스피드와 높이를 겸

### 손흥민 EPL 100호골, 토트넘 팬 선정 '올해의 골'

**브라이튼전 오른발 감아차기 골**  
**올해의 선수는 해리 케인 차지**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00호골이 구단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골로 뽑혔다. 토트넘 구단은 2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이 뽑은 올해의 골에 손흥민의 브라이튼전 오른발 감아차기 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달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과의 2022~2023시즌 EPL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0분 선제골을 넣었다. 올 시즌 7호골이자, 개인 통산 EPL 100번째 골이었다. 토트넘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해리 케인이 차지했다. 또 케인은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팬클럽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됐다. 케인은 EPL 317경기에서 출전해 209골을 기록, 리그 역대 득점 2위에 올라 있다. 1위는 260골의 앨런 시어러(441경기)다. 뉴시스

## 김하성, 세일 상대로 시즌 7호 2루타...샌디에이고 4연패

시즌 타율 0.236으로 소폭 상승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즌 7호 2루타를 날렸다. 김하성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트파크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18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부터 3경기 연속 안타를 날린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35에서 0.236(140타수 33안타)으로 소폭 올라갔다. 김하성은 보스턴 좌완 투수 크리스 세일을 맞아 첫 두 타석에서는 범타로 물러났다. 1회말 첫 타석에서는 루킹 삼진을 당했다. 세일의 강속구에 연신 헛스윙을 한 후 스트라이크존 가운데 높은 쪽을 통과하는 직구를 그대로 흘려보냈다. 선두타자로 나선 4회말에는 세일의 슬라이더를 노려쳤다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김하성의 방망이는 6회 날카롭게 돌아갔다. 6회말 선두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좌중월 솔로 홈런으로 샌디에이고가 2-4 추격에 성공한 후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세일의



시속 95.6마일(약 153.9km)짜리 바깥쪽 직구를 밀어쳐 우익수 방면 2루타로 연결했다. 김하성은 후속타자 잭 보가즈의 우익수 뜬공 때 3루까지 나아갔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중견수 뜬공을 친 김하성은 9회초 수비 때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샌디에이고는 2-4로 저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 4심 합의에도 수비 방해가 타격 방해로...KBO "후속 조치할 것"

20일 LG-한화전서 오심 논란

만원 관중 앞에서 오심이 나왔다. 4심 합의에도 오심을 바로 잡지 못했다. 문제의 장면은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리그 LG 트윈스-한화 이글스전에서 일어났다. 1-1로 맞선 9회말, LG 정주현이 무사 1루에서 대타로 나섰다. 1볼 상황에서 한화 투수 박상원이 2구째를 던지려는 순간, 1루 주자 신민재는 2루를 향해 뛰었고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던 정주현은 타격을 위해 배트를 세웠다. 이를 의식한 듯 한화 배터리는 피치 아웃을 했다. 포수 최재훈은 완전히 빠진 공을 잡으려 일어섰다. 그런데 이때 정주현이 공을 어떻게든 맞히려는 듯 배트를 던졌다. 결국 최재훈이 배트에 맞았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로 통증을 호소했다. 이 장면을 두고 4심 합의가 이뤄졌다. 권영철 주심과 전일수 1루심, 김병주 2루심, 유덕형 3루심이 모여 해당 장면에 대한 판정을 논의했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심판진은 '타격 방

해로 결론을 내렸다. 정주현이 출루하면서 1루 주자 신민재도 2루로 진루했다. 최원호 한화 감독이 곧바로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약 한 시간 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 장면의 오심을 인정했다. KBO는 "해당 판정은 4심 합의를 통해 한화 최재훈의 타격방해로 판정됐으나 KBO 심판위원회 추가 확인 결과 타격 방해가 아닌 수비 방해로 판정됐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알렸다. 이어 "이에 따라 KBO 심판위원회는 징계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잠실 구장에는 2만3750명의 관중이 들어 매진을 기록했다. 만원 관중 속 뜨겁게 달아오른 경기는 오심으로 얼룩졌다. 결정적 상황에서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심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쩔힘은 더욱 커진다. 이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만약 심판진의 오심으로 9회말 무사 1, 2루 기회를 얻은 LG가 결승점을 뒀다면 후폭풍도 더욱 거세졌을 수밖에 없다.

### 펜싱 女에페 송세라, 월드컵 개인전 우승

결승서 세계 1위 비비안 콩에 짜릿한 역전승...15개월만에 금메달

한국 펜싱 여자 에페 간판 송세라(부산광역시청)가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송세라는 2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에서 열린 여자 에페 월드컵 개인전 결승에서 비비안 콩(홍콩)을 14-13으로 이겼다. 세계랭킹 3위인 송세라는 지난해 2월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월드컵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월드컵 입상은 지난해 11월 에스토니아 탈린 대회 동메달 이후 6개월 만이다. 국제대회 개인전 우승은 지난해 7월 세계선수권대회 이어 10개월 만이다. 송세라는 세계랭킹 1위 콩에 11-13으로 끌려가다 짜릿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함께 출전한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는 11위, 최인정(계룡시청)은 20위를 기록했다.

